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내 아이야”

직접 그리고 쓴 감동 실화 ‘자폐 아들과 아빠의 작은 승리’

‘자폐 아들과 아빠의 작은 승리’는 일러스트레이터인 저자 이봉 루아가 자폐가 있는 아들을 키운 실제 일화를 직접 그리고 쓴 그래픽 노블(소설과 만화의 중간 형식)이다.

아빠 마르크와 엄마 클로에는 18개월이 지나도록 말을 하지 못하는 올리비에가 걱정돼 받은 검사에서 자폐 진단을 받는다. 그로 인해 ‘완벽한 아들’을 기대할 수 없다는 슬픔에 빠진 아빠는 방향 끝에 이혼까지 하게 되고 아내와 번갈아 가며 아이를 맡게 된다.

그가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내 아이야”라는 말을 입밖으로 꺼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



요했다. 의사, 변호사, 선생님 등 마음 한 켠에는 그가 바랐던 멋진 아들의 모습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모가 믿어주는 만큼 행복해지는 아이를 발견한 아빠는 전문가들이 내린 진단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쏟았던 교육법을 찾아간다. 아빠는 전문가를 신뢰하되, 아이의 삶이 진단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게 끊임없이 교육법을 고안하고 적용한다. 자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는 걸 알기에 희망을 버리지 않은 셈이다.

먼지를 보며 경기를 일으키는 모습을 본 후에는 반복되는 접촉으로 먼지와 익숙해지게 했고, 변화에 예민한 자폐아의 특징을 떠올려 매일 같이 가구 배치를 바꿔갔다.

또,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형성시켜주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통해 눈을 마주하게 했고, 외워서 쓰는 반항어를 활용해 짧은 문장을 구사하게 노력했다. 그 결과는 성공적으로 이 모두가 아빠와 자폐 아들이 함께 거둔 일상의 작은 승리다.

자폐아는 의사소통은 잘 못하지만 모든 걸 느낀다. 때문에 아빠는 아들이 있는 높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대신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이후, 자신과 아들에게 쏟아지는 타인의 따가운 시선에 맞서며 항상 아이의 곁에 있었다.

아들을 향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내 아이야”라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게 됐을 때가 오랜 노력 끝에 이뤄낸 진정한 승리다.

자폐아를 훌륭하게 키워낸 부모는 많지만, 대부분의 양육은 엄마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아들



의 양육을 전담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엄마가 보육비를 대는 등 각자 능력에 맞게 역할 분담을 했다.

만화로 돼 있어 아이들을 위한 책인가 싶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담고 있다.

부모 스스로 아이를 인정하고 내 아이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안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저자 이봉 루아는 “과거로 돌아가 기억을 헤집으면 자칫 괴롭고 힘들어질까 두려워 책으로 내기까지 오래 망설였다”며 “아이가 부모인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 주더라도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고 아이와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전했다.

한울림스페셜. 160쪽. 1만5,000원. /이보람 기자

■새로 나온 책

감정을 움직이는 정리의 법

◇정리만 했을 뿐인데, 마음이 편안해졌다= 공간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거나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트렌드가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이것은 공간의 상태에 따라 감정이 크게 영향받는다. 저자 다네이치 쇼가쿠는 환경을 통해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의 패턴, 행동을 바꾸고, 나아가서는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는 풍수 기술을 토대로 어떠한 상황에도 평상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습관을 함께 소개한다. 북클라우드. 192쪽. 1만3,500원.



꾸미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운 당신

◇행복을 연기하지 말아요=SNS에 올라온 사진과 글을 보면 누구나 행복할 것처럼 보인다. 격정이나 고민 따위는 하나도 없는 듯 보이는 화려한 일상들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 책에는 자신의 일상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50가지 이야기가 담겨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들이어서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고 미처 깨닫지 못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샘터사. 288쪽. 1만3,800원.



선명하게 달라지는 나를 만나러 가는 길

◇피아니스트는 아니지만 매일 피아노를 칩니다=무기력한 날들에 지친 저자 김여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몰입하는 무언가가 필요했고, 연습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과 과정이 필요했다. 고민 끝에 어린 시절 배웠던 피아노를 배우기로 정했고, 피아노를 배우며 고요함과 인내, 몰입을 알아갔다. 배우는 속도가 늦어도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 이 책은 음악과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다. 빌리버튼. 312쪽. 1만3,800원.



유쾌한 과학자의 우주적 탐구 일지

◇ZOOM 거의 모든 것의 속도=원자 단위의 세계부터 무한한 우주까지, 그 속에서 발생하는 움직임과 속도를 탐구하는 책이 나왔다.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저자 밥 버먼은 자연과 우주의 모든 측면이 어떻게 움직임과 속도와 관련돼 있는지 밝힌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나 박테리아와 혈액의 속도, 용암과 번개 그리고 우주 팽창 속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의 속도’에 대해 접근하면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상기시켜준다. 예문아카이브. 496쪽. 1만7,000원. /이보람 기자



세 여자가 말하는 게으름에 대한 찬양

나만의 속도로 사는 ‘게을러도 괜찮아’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대에 갔지만 놀 궁리만 하는 대학생, 착실하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진로를 고민하는 6년 차 직장인, 번번이 사표를 던지고 마는 8년 차 프로 퇴사러 등 인생이라는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 여자의 찌질하지만 멋지고 솔직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세 여자는 치열하게 살아본 결과, 역시 게으른 것이 최고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같은 자리에서 정성없이 발만 동동 구르는 생활에 차이보다 나무늘보처럼 굴뚝 지어진 사소한 기쁨을 즐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막상 어른이 돼 보니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많이 다르다고 느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딱히 이뤄낸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와중에,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은 늘어만 간다. 또, 회사와 학교 등에서

쉽게 불편함을 털어놓기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렵다. ‘게을러도 괜찮아’는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발랄한 위로를 건네며 차마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을 속 시원하게 실행에 옮긴다.

친구들과 한 번쯤 주고받았을 법한 생활밀착형 깨달음과 사랑스러운 고양이 일러스트가 어우러진 이 책은 세 사람의 이야기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글처럼 흐름이 매끄럽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치열한 세상에서 유연하게 살기’라는 주제의식으로 탄탄히 묶여 있으며, 유연하게 살기란 성인군자와 같은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준다.

나만의 속도로 사는 건 멋진 태도지만,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다짐은 무너지기 쉽다. 하지만 이를 잘 알고 겪어온 입주하·고현진·장한라 세 명의 저자는 기껏 다 잡은 마음이 흔들리는 일은 자연스럽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얘기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같은 큰일에만 신경을 쓰다간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만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며 매일의 작지만 확실한 기쁨을 누리는 일이 이 책이 권하는 유연함이다. 별곡. 232쪽. 1만5,000원. /이보람 기자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6834-7400